



VOL. 10 (2015. 09 ~ 2016. 02)

HELPERS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 치의학전문대학원 뉴스레터

VISION

- 02 HELPERS 비전과 목표
- 03 치의학전문대학원장 인사말

SPECIAL REPORT

- 04 Post 1주기 한국 치의학교육 인증평가를 받고서...

NEWS

- 06 학교 소식
- 08 교실 소식

FOCUS

- 12 해외 탐방

INTERVIEW

- 16 이금호 교수님 인터뷰

FOCUS

- 18 교실 탐방
- 20 문화 탐방

PEOPLE

- 22 발전기금과 동문 소식

최근 국내외 대학들은 스스로의 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비전과 사명 그리고 핵심 가치들을 마련하여 구성원의 단합과 목표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은 교육과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학 발전을 위한 가치를 마련하고자 이전까지의 교육목적 및 목표를 수정, 보완 하면서 비전을 '존경하는 글로벌 치과의 양성' (Global eminence founded on professionalism and respect in oral health and science)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경희대학교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로서 Global Eminence를 치의학 분야에서 치과의사로서 전문직업성에 대한 확고한 역량을 갖추는 것과 동시에 환자와의 상호간에 존경을 기반으로 국제적 위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가치(Core values)로서 Humanism(인본주의), Esthetic(개성과 조화), Leadership(지도력), Progressive spirit(진취성), Excellence(우수성), Responsibility(책임감), Stewardship(봉사정신) 등의 7개 핵심 가치를 선정하고 각각의 첫 글자를 따서 HELPERS라는 로고로 완성하였다. HELPERS는 우리가 교육하고 있는 학생들의 치과의사로서의 성장 발전만을 위한 가치가 아니라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동문 나아가 구성원 모두가 함께 추구해야 할 가치이자 우리의 전통으로서 가꾸어 가야 할 문화이기도 하다. 우리의 힘찬 도약을 위해 "Let's go Global HELPERS!"

교육목적 우수한 인성과 수행능력을 갖춘 치과 임상 및 치의학 연구자를 배출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치의학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목표**
1. 치의학 제반 질환을 올바르게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2. 시대사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인 평생학습태도를 기른다.
 3. 환자와 사회에 대한 치과의사로서 책임감과 윤리관, 인간성을 함양한다.



2017년,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개교 50주년

지난 50년을 돌아보며 이를 기념하고 이를 디딤돌로 삼아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HELPERS 10호가 발간되어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의 소식과 함께 다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7년은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의 개교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대학은 사립 치과대학으로서 최초로 1967년에 개교한 이래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치의학의 발전을 주도하였습니다. 최근 수 년 동안 실력 있고 열정이 있는 교수들이 부임하여 기초학문과 임상치의학의 연구 교육의 질이 더욱 높아졌으며 인문사회 치의학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여 졸업 후 사회의 리더로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50년을 돌아보며 이를 기념하고 이를 미래 발전의 디딤돌로 삼아 앞으로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대학과 동문회가 연합하여 “치과대학 개교 50주년 기념사업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동문여러분과 학생, 학부모님, 교직원 모두의 관심과 성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희 치의학 모든 구성원들 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50주년 기념 사업이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치의학전문대학원 박영국 원장

경희대학교는 그동안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치과대학도 국내의 위상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적으로 수월성을 신임받는 대학이 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일본의 여러 치과대학 및 병원과 교육/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에는 중국 대련의과대학, 태국 국립 프린스 오브 송클라대학교와 마히돌 대학, 베트남 호치민 국립 구강병원과 새로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는 태국의 출라롱콘대학교 아랍에미리트의 샤르자 대학, 미국의 오레곤대학 등 여러 대학들과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국제적 수준의 글로벌 치과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혁신적 변화를 꾀함으로써 위상 제고를 위한 구성원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자 합니다. 동문여러분과 학생, 학부모님, 교직원, 그리고 우리 대학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모든 분의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2월

치과대학장 겸 치의학전문대학원장 박영국

Post 1주기 한국 치의학교육 인증평가를 받고서...

치 의학교육 인증평가는 의료인으로서 양질의 치과 의사 양성을 위하여 대학이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과 준거를 마련하여 이를 자문하고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인증평가는 고등교육법 제11조에 고등교육기관 즉 대학에 대한 평가 조항에 2013년 12월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분야에 대해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으로부터 평가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개정하면서 그 중요성이 실제적으로 부각되었다(시행일 2015.12.22). 그에 따라 한국 치의학교육평가원은 2008년 재단법을 설립하여 2011년부터 치의학교육 분야에 대한 평가를 시행해왔고 2015년 1월 교육부로부터 치의학 교육 분야에 대한 평가전문기관, 즉 평가인증 기구로서 공식적인 인정(accreditation)을 받았다. 치의학을 포함한 의학분야(의학, 한의학, 간호학) 인증평가는 2012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도 의료인의 면허 시험 자격에 평가인증 기구의 인증 평가를 받은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이러한 평가는 이제 불가피하게 되었다(시행일 2017.2.2).

우리 대학은 2011년 1주기 자율시행 평가를 통하여 4년간의 인증 기간 종료를 앞두고 2015년 6월 ~ 10월까지 post 1주기 인증평가를 받았다. 이번 인증평가에서는 최근 고등교육의 동향인 성과기반 교육 패러다임 적용과 함께 임상교육이 강화되었다. 6월 30일까지 최근 2~3년간의 학교 교육과 관련하여 총 6개 대항목(프로그램의 운영, 교육과정, 학생, 교수, 자원, 임상교육환경)에 대해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

고 10월 15일부터 이틀간 현장방문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인증평가는 대학이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를 기반으로 현장 평가를 통해서 평가단이 마무리논평서를 공지하고 학교는 14일 내에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며 이후 예비논평서와 답변서 그리고 최종 판정 과정을 거치는데 6개 대항목에 대한 93개 세부항목을 기준을 바탕으로 모범(Exemplary), 적격 및 제언(Meed Requirement), 권고(Need Works), 결함(Deficiency) 등 4개 등급으로 측정된다. 이에 우리 대학은 최종적으로 7개 세부 항목에 대해 모범, 73개 적격 및 제언, 12개 권고, 0개 결함으로 판정받았고 2016년 2월 16일 치의학교육 기본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4년간 인증을 받았다.

의학계열 인증평가는 해당 분야의 교육의 질적 향상과 함께 의료인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법제화와 시행이 진행되고 있어서 계열 소속 모든 대학들이 인증평가를 받아야만 졸업예정 학생들이 면허 시험에 자격을 얻게 되므로 입학 및 폐교까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증평가를 주관하는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등 자체적으로 개선하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다. 학교차원에서는 인증평가의 불가피성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여기서 제시된 기준이나 방향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평가원 활동에 적극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단순히 국내 인증평가 기준에만 연연하는 소극적 대응이 아니라 치의학 이외의 의학계열 전반의 인증평가에 대해 이해하고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과 같은 곳



에서의 교육 인증평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서 자체 발전계획을 보다 엄격하게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대학 발전을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일이다. 평가원의 경우 더 많은 전문 인력 영입과 양성 그리고 대학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증평가가 국내 치과의사 양성에 있어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준 설정이나 패러다임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한 적용 방안 및 사례 등을 도출하여 치의학 교육계 전반에 이해를 공유해야만 실제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치과대학으로의 학제개편과 인증평가를 계기로 우리 대학은 잠시 정체되었던 중장기 발전계획들에 대해 최근 2년간 추진력을 가할 수 있었다. 먼저는 국제 인증평가 기준에 대한 연구와 탐색을 통해 치과대학 교육과정에 성과기반 패러다임을 도입하여 구성하였고 졸업요건에 의료인으로서의 미래사회 직능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자질들을 함양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다. 또한 임상전단계 실습을 위한 펜텀 전문 교체, 치과병원 강당 및 치과대학 강의실 2개 리모델링, 학생 자율학습실 신설, 전산실습실과 PBL실 등을 리모델링 하였고 얼마 전에는 학생종합진료실 확장 및 환경을 대폭 개선할 수 있었다.

우리 대학은 4년 인증이 경과되는 시점 이전, 즉 2019년에 다시 인증평가를 받아야만 한다. 이전까지는 인증평가를 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계획하고 시작해온 발전방향에 대해 보다 널리 공유하고 소통하며 이를 내실화하는 방향으로의 단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임상진료 실적과 연구 업적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현재 시류에서 교육과정위원회의 활동은 여전히 바쁠 것이고 개별 교수님들의 교육에 대한 부담감은 늘어갈 것이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다른 직업을 택하지 않고 학교를 선택한 중요한 이유이자 사명일 수 있으며 학교 밖에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실제적인 노력일지도 모르겠다.

글 치의학교육학교실 방재범



2015학년도 2학기 교원 인사

- 신임 교수 발령 : 치과교정학교실 김경아 조교수(B)
(2015.09.01)
- 해 외 장 기 연 수: 치과보존학교실 김덕수 부교수
(2015.08 ~ 2016.07)
- 해외장기연수 복귀 : 악안면생체공학교실 황유식 부교수
(2015.09.01)
- 승진(2015.09.01 일부)
신승일 조교수(A) → 부교수
주성숙 조교수(A) → 부교수
 - 재임용(2015.09.01 일부)
어규식 부교수
 - 퇴직(2016.01.28 일부)
박용덕 부교수(예방사회학교실)

2015학년도 2학기 전체교수 워크숍



- 치과대학 ·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2015학년도 2학기 전체교수 워크숍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 일 시 : 2015.08.29(토)
 - 장 소 :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 주 제 : Post 1주기 치의학교육 인증평가 영역별 발표 및 보고

2016학년도 신입생 합동오리엔테이션
(치과대학 · 치의학전문대학원)

- 2016학년도 치과대학 ·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예정자 합동 오리엔테이션을 보직교수 및 담임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 일 시 : 2016.02.19(금) ~ 02.20(토) 1박 2일
 - 장 소 : 알펜시아 리조트(강원도 평창)
 - 목 적 : 신입생에게 우리대학의 장학정신과 대학교육의 의의 및 목적을 이해시키고 원만한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학교 소개, 재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한 유대관계 및 소속감을 형성하고자 함

Post 1주기 치의학교육 인증평가 실시

- 치과대학 ·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치의학교육 인증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 평 가 기 간 : 2015.10.14(수) ~ 10.16(금) 2박 3일
 - 평 가 장 소 : 치의학관 교수회의실
 - 평 가 영 역 : 1영역(프로그램의 운영), 2영역(교육과정), 3영역(학생), 4영역(교수), 5영역(자원), 6영역(임상교육의 환경) 총 6개 영역
 - 평가자 명단 : 평가단장 최홍란 / 평가위원 서정택, 권호범, 최진우 / 조율위원 김각균, 김정년 / 지원인력 김윤진 포함 총 7명
 - 평 가 결 과 : 4년 인증 획득

201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치의학전문대학원)



- 2015학년도 전기 77명(석사 76명, 석·박사복합학위과정 1명)이 졸업을 하였으며, 각종 수상자는 교내·교외 포함하여 총 22명이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 일 시 : 2016.02.17(수)
 - 장 소 : 치과병원 지하강당
 - 졸업자 : 류경완 포함 총 77명
 - 수상자 : 총장상 박재현(성적순위 1등) 포함 총 22명

2016학년도 입학식(치의학전문대학원)



- 2016학년도 치의학전문대학원 80명 입학 예정자들의 입학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일 시 : 2016.03.02(수) 08:30 ~ 09:00
 - 장 소 : 치과병원 지하강당

2016학년도 입학식(치과대학)



2016학년도 치과대학 입학 예정자 56명의 입학식을 실시하였습니다.

- 일 시 : 2016.02.26(금) 14:30~18:00
- 장 소 :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

2015학년도 치과대학 · 치의학전문대학원 학부모 초청 간담회 개최



치과대학 ·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학생과 학부모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학부모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 시 : 2015.11.06(금)17:00~20:00
- 장 소 : 1부(치과병원 지하강당), 2부(평화의 전당)
- 기대효과 :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의 발전방안에 대한 전체 구성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발전기금 후원자 발굴 및 기금모금 활성화를 기대함

2015학년도 치의학전문대학원 사은회 개최



2015학년도 4학년 졸업을 앞두고 스승의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재학생 및 교수 100여명이 참석하여 사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 일 시 : 2015.11.03.(화)18:30~
- 장 소 :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

2015학년도 치과의사 국가시험

치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은 제 68회 치과의사 국가고시에 77명이 지원하여 98.7%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 일 시 : 2016.01.15(금)
- 장 소 : 서울시 용산구(용산공업고등학교)

구강생리학교실

■ 논문/특허발표 및 연구활동

- 노대현 교수가 “Clonidine Reduces Nociceptive Responses in Mouse Orofacial Formalin Model: Potentiation by Sigma-1 Receptor Antagonist BD1047 without Impaired Motor Coordination.” (Biol Pharm Bull. 2015;38(9):1320-7) 등 논문 2편을 발표하였다.

■ 학회 참석/발표

- 2015년 10월, 제67회 대한생리학회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2편을 발표하였다.
- 2015년 11월, 제14회 대한기초치의학회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2편을 발표하였다.

구강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

■ 교실동정

- 2016년 1월, 김정희 교수가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이사에 선임되었다.

■ 논문/특허발표 및 연구활동

- “AMPK AND AUTOPHAGY IN GLUCOSE/GLYCOGEN METABOLISM” Mol. Aspects Med. 포함 SCI급에 2편을 게재하였다.

■ 학회 참석/발표

- 2015년 10월, “Vps34-Beclin-ATG14L complex protein assay for in vitro autophagy inhibitor screening”을 주제로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Society of Applied Pharmacology, Korea에 포스터를 발표하였다.

구강악안면병리학교실

■ 논문/특허발표 및 연구활동

- “Magnetic nanocomposite scaffolds combined with static magnetic field in the stimulation of osteoblastic differentiation and bone formation.” (Biomaterials)를 포함하여 SCI급 국제 논문에 약 14편을 게재하였다.

■ 연구비

- 2015년 11월, 김은철 교수가 연구책임자로서 “사람 치수출기세포의 신경분화 신규조절 발굴 및 중추신경질환 세포치료 기반 연구”로 도약연구지원사업(2년)으로 선정되었다.
- 2015년 11월, 윤형문 교수가 연구책임자로서 “대사성 골 질환을 제어하는 세로토닌 수용체 발굴과 신규 기능 연구”로 기본연구지원사업(3년)으로 선정되었다.

■ 학회 참석/발표

- 윤형문 교수가 기초치의학회에서 “Novel insights of Serotonin 6 G-protein-coupled receptor in bone”로 구두 발표하였다. 생체재료학회, 대한기초치의학, MRC연합 성과 발표회 등에서 발표하였다.

구강해부조직학교실

■ 교실동정

- 2015년 9월, 주성숙 조교수가 부교수로 승진하였다.
- 2015년 10월, Takano Yoshiro 외래교수(일본 동경의과치과대학 명예교수)가 방한하여 특강을 진행하였다.
- 2015년 11월, 주성숙 교수가 KADR 편집이사로 선임되었다.

■ 학회 참석/발표

- 2015년 10월, 주성숙 교수가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JADR 학회에 참석하였다.

악안면생체공학교실

■ 논문/특허발표 및 연구활동

- 광감작제 담지 탄산칼슘 복합 나노입자,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초음파 조영 및 광역학 치료용 조성물, 폴리도파민과 그라핀 혼합물이 코팅된 임플란트 및 그 제작방법 등 특허 4건을 등록하고, 특허 1건을 출원하였다.
- “Photosensitizer-loaded bubble-generating mineralized nanoparticles for ultrasound imaging and photodynamic therapy”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B, IF = 4.726) 외 SCI 논문 11편을 게재하였다.

■ 연구비 수주

- 문지희 교수가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지원사업(여성과학자 지원, 2015.11 - 2018.10)으로 연구비를 수주하였다.

■ 학회 참석/발표

- 2016년 한국생체재료학회에서 “Bioinformatics in Dental Research: Identification of New Biomarkers in Bone Differentiation”로 구두발표하였다.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 2015년 9월 19일, 이백수 교수가 단국대학교치과병원에서 열린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2015년 추계학술집담회에 참석하였다.
- 2015년 9월 24일-10월 5일, 이백수 교수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악안면초음파학회에 참석하였다.

- 2015년 10월 4일, 권용대, 최병준 교수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열린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2015년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하였다.
- 2015년 10월 5일, 이덕원 교수가 경희대학교에서 열린 경희 의학상연구논문 부문에서 수상하였다.
- 2015년 10월 8-10일, 권용대 교수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2015 IFDAS에서 “Presurgical screening of geriatric patients”에 대해 발표하였다.
- 2015년 10월 11일, 이덕원 교수가 서울 성모병원에서 열린 KAO 학술대회에 참석하였다.
- 2015년 10월 15-18일, 류동목, 이덕원, 이정우 교수가 대만에서 열린 아시아치과마취과학회에 참석하였다.
- 2015년 10월 16-18일, 권용대 교수가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The 60th Congress of Japanese Society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ons에 참석하였다.
- 2015년 10월 17일, 이백수 교수 및 수련의, 일본치과의사 30여명이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임플란트 센터에서 열린 2015 Kyung Hee Advanced Course of Sinus Graft에 참석하였으며, 이백수 교수가 live surgery 및 임상 강연하였다.
- 2015년 10월 17일, 권용대 교수가 중앙대병원에서 열린 중앙대학교병원 이전 개원 10주년 턱얼굴클리닉 학술대회에서 “Elaboration of maxillofacial procedures for OSA (obstructive sleep apnea)”에 대해 발표하였다.
- 2015년 10월 27-30일, 이정우 교수가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2015 ICOMS에 참석하였다.
- 2015년 11월 7일, 이백수 교수가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ITI forum에 참석하였다.
- 2015년 11월 12-14일, 류동목, 이백수, 지유진, 이덕원, 최병준, 이정우 교수가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제54회 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 참석하였다.
- 2015년 11월 22일, 권용대 교수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에서 열린 대한치과수면학회에 좌장으로 참석하였다.
- 2015년 12월 5일, 이정우 교수가 조선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열린 구강암테마연수회에 참석하였다.
- 2015년 12월 12일, 이백수 교수가 서울 코엑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에서 열린 2015 제 4회 ITI forum day에 참석하였다.
- 2015년 12월 19일, 이정우 교수가 경희대학교치과병원 지하1층 강당에서 열린 제 5회 KSSiS symposium에서 “The application of a presurgical virtual simulation in the oral & maxillofacial surgery:Trials & Errors of the single surgeon's experiences”에 대해 강연하였다.
- 2016년 1월 30일, 류동목 교수가 회기 경희의료원에서 열

린 대한구순구개열학회에 참석하였다.

소아치과학교실

- 2015년 10월, 최성철 교수가 국제치과외상학회(IADT)에서 fellow로 등극하였다.
- 2015년 10월 23-24일, 단국대학교 치과대학에서 열린 2015 소아치과 추계학술대회에 전체 의국원이 참여하였다.
- 2015년 11월 5-7일, 김광철, 이효설 교수, 이정민, 김숙희, 임현수 수련의가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장애인 치과학회에 참가하였다.
- 2015년 11월 26일, 대한소아치과학회 서울 집담회를 경희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주관하였다.
- 2015년 11월 28일, 강동 경희대학교병원에서 열린 대한장애인지과학회 추계학술집담회에 소아치과 교수 및 수련의가 모두 참여하였다.
- 2016년 1월 9일,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신년회를 개최하였다.
- 2016년 2월 28일, 김광철 교수가 세계일보에 “새학년 시작하는 우리아이 치아건강”에 관하여 투고하였다.

안면통증구강내과학교실

- 2015년 10월 25일, 홍정표교수가 경북대 글로벌프라자에서 열린 대한안면통증 구강내과학회에서 “성격유형별 안면통증환자의 스트레스 관리법”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15년 11월 26일, 전양현 교수가 치협강당에서 열린 ‘치국시발전방향 공청회’에 참석하여, 지필고사변화에 대해 소개하였다.
- 2015년 12월 6일, 어규식 교수가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열린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학술집담회에 좌장을 맡았다.
- 2015년 12월 11일, 홍정표교수가 조선비즈와 헬스조선에 “입마름의원인 구강건조증”을 주제로 기사를 게재하였다.
- 2016년 2월 18일, 어규식 교수가 YTN 사이언스 메디컬노트에 출현하여 턱관절장애에 관해 강연하였다.
- 2016년 2월 24일, 월례조회에서 우수부서를 수상하였다.
- 2016년 2월 26일, 전양현 교수 및 구강내과학교실에서 발행한 “치과물리치료 실제”에 관한 기사가 덴탈투데이 헬스조선 덴틴에 소개되었다.

영상치의학교실

- 2015년 9월 17-18일, 치과병원 보건복지부 인증 자체평가

- 가 진행되었으며, 최용석 교수가 평가위원으로 활동하였다.
- 2015년 10월 24일, 강릉원주대학에서 열린 영상치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최용석 교수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에 대한 영상진단”에 대해 특별강연을 하였다.
- 2015년 11월 18일, 월례조회에서 우수부서를 수상하였다.
- 2016년 1월 9일, 영상치의학과 동문회 주최로 ‘2016년 신년하례식 및 학위패수여식’을 하였다.
- 2016년 2월 29일, 판독실에 새로운 판독장비 2세트가 구비되었다.

치과교정학교실

- 2015년 10월 18일, 강윤구 교수가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치과교정학 교실에서 주최한 ‘돌출입 비수술적 교정술’ 세미나에서 “palatal TSADs and lingual retraction”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15년 10월 29-31일, 강윤구 교수가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치과교정학회 제 48회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Orthodontic treatment for successful autotransplantation in adult patients: A case report”, “Esthetic prosthodontic considerations in maxillary central incisors extraction orthodontic treatment”를 주제로 e-poster를 전시하였다.
- 2015년 11월 5일, 박기호 교수가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New trend of 3D facial soft tissue imaging in orthodontic diagnosis”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15년 11월 7일, 김수정 교수가 경희의료원 정보행정동에서 열린 ‘2015 Kyung Hee International Rhinologic Symposium’에서 “Dentofacial problems”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15년 11월 13일, 박영국 교수가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교정학회에서 “treatment of occlusal plane canting”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15년 11월 14-15일, 강윤구 교수가 제주도에서 열린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워크샵에 참석하였다.
- 2015년 11월 15일, 박영국 교수가 인도네시아 파당에서 열린 FDI 서아시아 교육 프로그램에서 “simple orthodontic treatment”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15년 11월 16일, 박영국 교수가 서상기 국회의원 공청회에서 “국립치의학융복합연구원 설립 필요성”에 대해 기조발언하였다.
- 2015년 11월 18일, 김성훈 교수가 후쿠오카에서 열린 제 74회 일본교정학회에서 “Clear up the complicated Orthodontic cases using Biocreative strategy”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15년 11월 29일, 박기호 교수가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개최된 엠파워 심포지엄에서 “Clinical Application of Clear Self Ligating Bracket”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15년 12월 6일, 김성훈 교수가 서울성모 치과학교실 학술강연회에서 “3D 프린팅과 CBCT를 활용한 첨단 바이오 크리에이티브 교정 치료법”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15년 12월 12일, 박영국 교수가 말레이시아 교정학회 2day course에서 “biologic tooth movement and efficient orthodontics”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15년 12월 12일, 강윤구 교수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8층 강당에서 열린 대한양악수술학회 2015년 동계학술대회에 참가하여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 환자의 선수술을 이용한 치료의 치험례”를 주제로 포스터 전시하였다.
- 2016년 1월 17일, 안효원 교수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열린 포괄치과연구회 학술집담회에서 “기계적 진동장치의 최신지견 및 임상적용; accelerated effects on cytokine levels and tooth movement rate”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16년 2월 16일, 박영국 교수가 태국 출라롱콘 대학, 마히돌 대학, 프린스 오브 송클라 대학과 협력협약을 체결하였다.
- 2016년 2월 20일, 김경아 교수가 강남 토즈 2호점에서 열린 경교회 학술집담회에서 “비대칭패턴에 따른 술전교정치료전략”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치과보존학교실

- 2015년 11월 8일, 최경규 교수가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5 오스텝 미팅 서울’에서 “구치수복의 문제와 해결”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15년 11월 14-15일, 김선영 교수가 세종대학교 광개토태관에서 열린 대한치과보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Minimal invasive treatment in restoration for root canal treated tooth”를 주제로 강연하였고, 외국원이 참석하였다.
- 2015년 11월 15일, 장지현 교수가 제144회 대한치과 보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Bulk-fill resin composites and flowable resin composites : An In Vitro evaluation of their polymerization behavior and mechanical properties”라는 주제로 신인 학술인 강연을 하였다.
- 2015년 12월 5일, 장석우 교수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공직치과의사회 종합학술대회에서 “근관치료 Do’s and Don’ts”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16년 1월 17일, 최경규 교수가 GC Korea 덴탈 칼리지에서 열린 ‘임상의를 위한 어드밴스드 핸드온 코스’에서 강연하였다.

- 2016년 2월 14일, 김선영 교수가 코엑스에서 열린 2016 사 인학술대회에서 “보고 듣고 따라하는 전치부 레진”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16년 2월 20-21일, 치과보존과 진료실이 3층에서 4층으로 이전하였다.

치과보철학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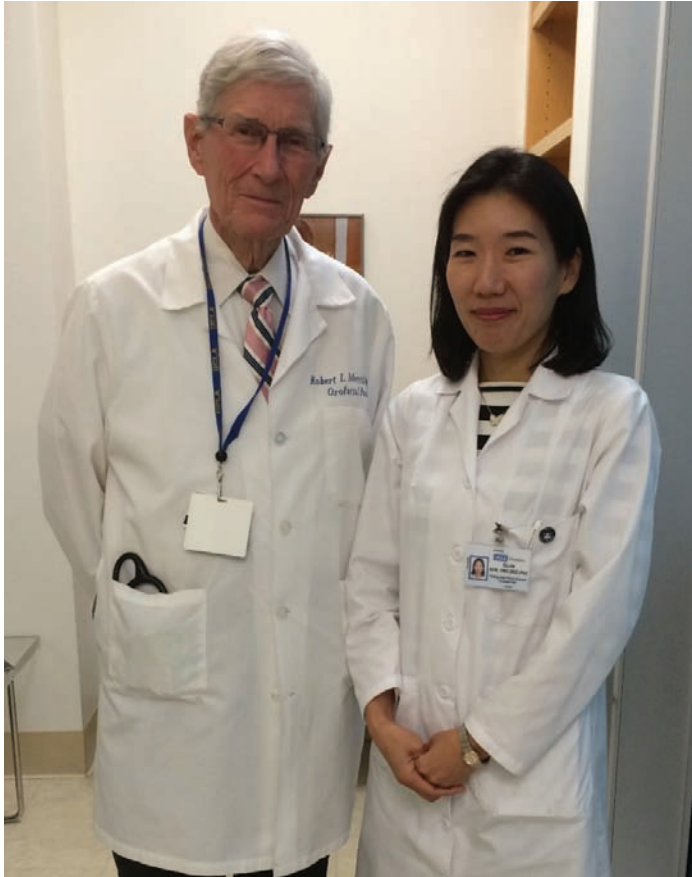
- 2015년 9월 1-23일, 이성복 교수가 미얀마 치과 의사 의회 파견 Dr. Nway Nway Khine 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지도 하였다.
- 2015년 9월 17일, 이성복 교수가 미국 Tufts대학 Prof. H-P Weber 초청 ITI Top-Down SC 학술행사를 개최하였다.
- 2015년 9월 18일, 이성복 교수가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된 ICP(세계치과보철학회)에서 “Brain-guided & Computer-guided Implant Dentistry”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15년 10월 9-11일, 이성복 교수가 중국 심양 치과 의사회 구강의학과 초청으로 “치과임플란트학; 혁신적인 기술변화와 미래의 임플란트 치의학”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15년 10월 25일, 이성복 교수가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WeDex 2015 공동 국제학술대회에서 “인생 2모작 건강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맞춤형 치아관리 노하우”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15년 10월 28일-11월 3일, 이성복 교수가 이집트 나흐 대학과 영국 글래스고우대학이 공동 주최하는 제1회 국제 임플란트 컨퍼런스에서 특강을 하였으며, ‘상악동거상 수술 및 즉시부하 Live surgery’를 시연하였다.
- 2015년 11월 7일, 이성복 교수가 서울 밀레니엄힐튼 호텔에서 열린 ITI 포럼데이에서 “Reduced Diameter Implant(Roxolid) 임상증례”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15년 11월 8일, 권공록, 노관태, 백장현 교수 및 전 의국원이 osstem implant 학회에 참석하였고, 백장현 교수가 포스트 발표 대상, 노관태 교수가 금상을 수상하였다.
- 2015년 11월 22-23일, 우이형, 권공록, 김형섭, 배아란, 노관태, 백장현 교수 및 전 의국원이 세종대에서 열린 추계보철학회에 참석하였다.
- 2015년 11월 23일, 김형섭 교수 및 일부 의국원이 구강악안면외과와 implant hands on을 시행하였다.
- 2015년 11월 28일, 백장현 교수가 경희대에서 열린 대한치과 의사학회에서 강연하였다.
- 2015년 11월 29일, 우이형 교수 자제분 결혼식에 전 교수 및 의국원이 참석하였다.
- 2015년 12월 6일, 노관태 교수, 손다훤, 김성아 선생이 세종대에서 열린 추계심미치과학회에 포스터를 발표하여, 노관태 교수가 dentium 감사상을, 손다훤 선생이 최우수상을

- 을 수상하였다.
- 2015년 12월 12일,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ITI 포럼데이에 참석하였다.
- 2015년 12월 20일, 백장현 교수 결혼식에 전 교수 및 의국원이 참석하였다.
- 2015년 12월 26일, 권공록 교수 및 일부 의국원이 경희대 병원에서 열린 공직치과 의사회 주관 금연교육에 참석하였다.
- 2016년 2월 8일, 이성복 교수가 미얀마 네피도에서 MOU(미얀마보건부와 치과 의사 교육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하였다.
- 2016년 2월 14일, 김형섭 교수가 shinedental 주관 학회에서 “resin cement”를 주제로 강연하였고, 전 의국원이 참석하였다.
- 2016년 2월 19일, Dr. Michael A. Smith, 턱관절 및 교합 특강 (Starting Comprehensive Digital Occlusion Analysis)에 참석하였다.
- 2016년 2월 23일, 권공록 교수 및 1, 2년차 수련의들이 implant hands on 강의에 참석하였다.

치주과학교실

- 2015년 9월 6일, 경희대학교 청운관에서 제4회 K perio 학술집담회를 개최하였다.
- 2015년 9월 6일, 강경리 교수가 경희대학교에서 열린 치주과학-보철학 교실 종합학술대회에서 “For a better dentist, Things not to be ignored”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15년 9월 9일, 경희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열린 치주학회 제3차 학술집담회에 참가하였다.
- 2015년 9월 23-26일, 임현창 교수가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EAO(European Association for Osseointegration)에 참석하였다.
- 2015년 10월 8-9일, 신승윤 교수, 홍지연 교수가 발리에서 개최된 APSP(Asian Pacific Society of Periodontology)에 참석하였다.
- 2015년 10월 24-25일, 전 의국원이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 55회 대한치주과학회 종합학술대회에 참가하였다.
- 2015년 11월 7일, 전 의국원이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에서 열린 2015년 대한노년치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가하였다.
- 2015년 11월 28일, 전 의국원이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지하1층 대강당에서 열린 2015년 대한치과 의사(史)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가하였다.

안수진 교수님 해외탐방 연수기 ; UCLA Sleep Center



2015년 2월 1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 일년 동안 해외 연수를 다녀와서 2월 1일부터 출근. 정신 없이 지내는 가운데 어느 날 문화홍보위원회로부터 도착한 이메일 한 통. HELPERS에 실을 해외탐방 연수기 부탁 드립니다. 이거 내가 예전에 다른 교수님들께 드렸었던 이메일인데 이제 내가 받을 차례가 되었구나. 올 것이 왔네.

연수기를 쓰려고 연수 처음부터 떠올려보니 DS-2019가 도착하지 않아 맘 졸였던 기억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 나는 분명 2014년 7월에 서류를 보냈는데 11월이 되어도 감감 무소식. 담당 비서에게 이메일을 보냈더니 check해보겠다는 회신. 그러나 12월 중순이 되어도 DS-2019는 오지 않았다. 내 출국 날짜는 1월 20일. 미국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때 최소 2-3주 정도 휴가를 가니 이메일 말고 전화를 해보라는 주변 교수님들의 조언에 전화를 해봤다. 전화를 받은 비서 왠 1월 첫째 주까지 담당 부서가 winter vacation이라 지금은 알아볼 수 없다는 성의 없는 대답. 뭔가 잘못 된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과 무성의한 비서에게 화가 났지만 꼭 참고 winter

vacation이 끝나는 1월 첫째 주까지 기다렸다. 마침내 winter vacation이 끝나는 날 다시 전화를 했더니 너의 서류는 이제부터 processing이 시작되어 최소 3주 이상 앞으로 기다려야 DS-2019가 나올 거라는 비서의 대답. 그렇다 내가 7월에 보냈던 서류는 비서가 계속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내가 전화를 한 12월 중순에야 비서는 자기가 접수를 안 했던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내 출국까지 남은 날짜는 앞으로 2주.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박준봉 전 학장님을 찾아가서 읍소 끝에 얻은 UCLA 박노희 학장님과의 전화. 담당 비서가 앞으로 최소 3주 이상 걸릴 거라고 했던 내 DS-2019는 박노희 학장님과의 전화 이틀 후 Fedex express로 반포 우리 집에 도착하였다. 게다가 고압적이기 짝이 없던 비서의 완전 공손한 사과의 이메일까지! 우와 이것이 말로만 듣던 Dean Park의 파워로구나! 정말 자랑스러웠다. 이렇게 나의 UCLA dental school sleep center의 연수 생활은 천신만고 끝에 무사히 예정된 날짜에 출국하여 2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UCLA 치과대학의 sleep center는 Orofacial pain department의 Merrill교수님과 neurologist Dr. Chang, psychologist Dr. Goodman과 Dr. Carr 그리고 radiologist Prof. Malya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월, 금 오전 7시-9시에 그 주의 환자들의 chart와 PSG data를 review 하는 patients round를 시행하며 화요일 오전에는 Merrill 교수님의 lecture, 수요일에는 레지던트들 진료, 목요일에는 Merrill교수님의 private clinic이 있어 다양한 치과 수면 장치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다. 특히나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2월 6일부터 6월 6일까지 진행되었던 sleep mini residency course였는데 이것은 UCLA 치과대학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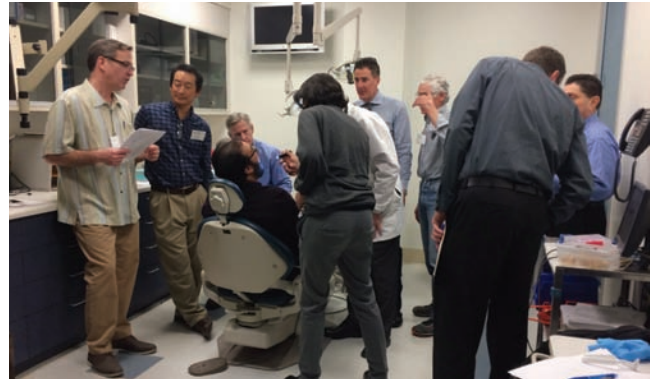
서 하는 continuing education course 중 하나로써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개원의 선생님들을 상대로 하는 연수회 같은 것이었다. Merrill교수님께서 그 연수회에 참여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5개월간 진행되는 코스를 통해 수면에 대한 basic science의 기초부터 응용까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 게다가 “Dental management of sleep disorders”의 저자 Dr. Bailey가 이 코스의 co-director였고 매달 하루씩 레지던트들의 teaching을 위해 오셔서 실제 이분의 진료까지 observation할 수 있어 기대하지 않았던 황재였다.

연수 중 즐거웠던 이벤트 중 하나는 바로 8월에 우리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4학년 학생들의 2주간의 UCLA 치과대학 방문이었다. 타국에서 만나니 더욱 반가웠고 한 명 한 명 똑똑한 모습에 참으로 사랑스러웠다. 학생들의 방문을 핑계로 박노희 학장님과도 한번 더 뵙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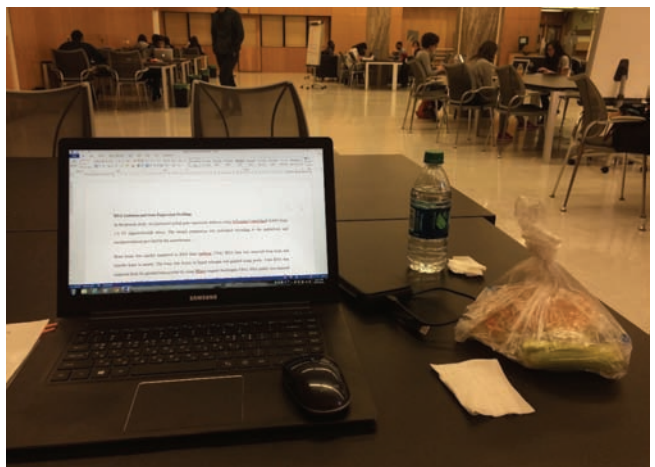
내가 있던 department는 주중 일과가 아침 7시부터 시작되어 일찍 시작하는 반면 오후 3시 정도면 대부분의 스케줄이 끝난다. 오전 스케줄을 마치고 나면 새로 배운 것들도 정리 할 겸 이메일도 볼 겸 검사검사 library에 갔었다. 주로 의과대학생들과 치과대학생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쉬기도 하는 곳이었는데 인터넷 속도가 매우 빠르고 그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거의 모든 저널들을 다운 받을 수 있고 아직 publish되지 않은 early view 저널들까지도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어 매우 편리했다. 우리학교 중앙도서관 사이트에서 다운 받을 수 있는 저널들이 많이 제한적인 것과 대조되는 부분이었고 또한 부러운 부분이었다. 또한 library 안에서 스낵은 물론이고 도시락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서 공부하면서 집에서 싸온 도시락이랑 편하게 먹으며 학생 때로 되돌아간 듯한 느낌이였다.

강동경희대병원 Sleep center의 신경과 신원철 교수님의 요청으로 4년전부터 시작한 수면장치 치료. 그리고 이어서 연수까지. 제대로 잘 몰랐던 분야라 나를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했고 UCLA 치과대학 수면 센터 교수님들과 레지던트들 그리고 Dr. Bailey와 좋은 인맥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보람된 연수였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하고 돌아와준 아이들에게 감사하고 같이 못간 남편 대신 내가 연수 생활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신 어머님 아버님께 정말 많이 감사 드린다.

글 · 사진 치과보철학교실 안수진 편집 약안면생체공학교실 이재형



Sleep mini-residency course 모습



UCLA Biomedical library. 우리나라처럼 조용하거나 경직된 분위기가 아니라 library에서 삼삼오오 모여 discussion도 하고 옆에 소파에서는 누워서 자는 학생들도 있고 매우 자유로운 분위기였다.

신승일 교수님 해외탐방 연수기 ; University of Florida, College of Dentistry

어디에서 해외 연수를 하셨나요?

2015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Florida주의 Gainesville이라는 작은 시골도시에서 있는 University of Florida, College of Dentistry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흔히 플로리다 대학교라고 말하는데, 사실 플로리다에는 University of Florida (UF)와 Florida State University (FSU)라는 거대한 두 개의 주립대학이 있고 두 학교 모두 다 우리말로는 플로리다주립대학이라 하는 것 같습니다. FSU가 주도인 Tallahassee에 있지만 Florida주의 공교육 허브는 중부 플로리다에 있는 UF이며 주의 모든 교육정책은 UF에서 끌고 간다고 하네요.

연수를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Florida에 대해 알고 있는 거라고는 공룡센터 샤킬오닐이 있었던 NBA 올랜도 매직스의 연고지인 올랜도와 마이애미 비치밖에 모르던 저에게 UF가 있는 Gainesville은 너무 생소한 도시였습니다. 구글맵을 검색하고 여러 여행정보 사이트를 뒤져도 한 두 번의 비행으로 그 도시에 도착할 방법이 없었는데요. 결국 비행기를 두 번 갈아타고 무려 23시간의 비행 끝에 Gainesville 공항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햇살과 야자수, 그리고 멋진 바닷가를 기대했던 우리가 죽은 한국의 초봄과 같이 날씨변덕이 심한 매서운 바람이 부는 플로리다를 맞이하며 모두 당황했었습니다.

연수생활은 어떠셨나요?

우선 학교의 International Center에 가서 visiting scholar

등록을 하면서부터 나의 UFDC 연수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과 사무실에서 여러 동료 교수들을 만나고, 치주과 외래에서 전공의들과 진료보조 스태프들과 인사를 하면서 ‘아! 정말 시작되는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약간 긴장되기도 하였지만, 제 supervisor이자 치주과 주임교수인 Dr. Aukhil의 세심한 배려덕분에 별 탈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죠. Gainesville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UF 치과대학 10층에 연구실을 배정받자마자 연수에 필요한 여러 가지 qualification을 위해 한 달간 정신 없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주로 온라인 교육이었지만 경우에 따라 일대일로 강의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연수에서 나의 목표는 IRB 위원회의 실무를 경험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그뿐 아니라 과에서는 임상연구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였으므로 받아야 할 교육의 양이 생각보다 너무 많았었습니다. 또한 연수 막바지에는 Dr. Aukhil이 진행하는 genetics관련 in vitro 실험에 참여해야 했기에 실험실 교육도 받느라 정말 1년 내내 교육과 평가의 연속이었습니다. 조금 번거롭고 귀찮기도 했지만 그래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참으로 유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플로리다 대학교의 치과대학과 치과병원을 우리나라와 비교한다면 어떤 점이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미국에 수많은 치과대학들이 각자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에 비교 할 수는 없겠죠, 제가 있었던 UF만 예를 들면 Florida 주의 Flagship 대학답게 한마디로 “엄청나게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립대학이다보니 학교의 모든 행정 서비스나 관리를 주정부에서 대부분 담당하





고 있습니다. 제가 있던 치주과는 대학과 병원으로 나뉘는데, 임상과 교육, 연구를 모두 담당하는 겸임교수들이 4분 계시고, 연구만 담당하는 대학교수님도 3분, 교육학 담당 교수님 한 분 이렇게 8분이나 일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운영하는 실험실은 교수님마다 각각 운영하고 있고 그 밑에 다양한 전공의 연구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죠. 물론 치과대학 진학을 목표로 공부하는 자원봉사자들도 많습니다. 주로 UF의 학부생들이죠. 병원은 대학과 함께 있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엄연히 구분됩니다. 치과대학은 UF소속이지만 의과대학, 치과대학, 수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을 묶어서 University of UF Health라고 하고, 각 병원들은 UF Health System이라는 큰 조직으로 운영되며 Central Florida 각 지역의 종합병원과 care spot을 조정 관리합니다. 치주과는 Dental Science Building 1층에 있는데, 보철과와 통합진료를 합니다. 과 입구에 들어가면 양쪽으로 두 과의 스테이션이 있고 서로 협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병원은 보철과와 치주과가 서로 층이 달라서 환자분들도 불편하고, 의료진들도 서로 상의할 일이 있을 때 얼굴 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면이 참 부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출근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점심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스크럽복을 입은 사람들이 병원 문 근처에서 이리 저리 전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가만히 전화 내용을 엿들으니 원내생들이 약속환자와 통화하면서 시간 지켜 와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더라구요. 이걸 보며 저의 원내생 시절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어떻게 예약을 잡은 unit chair인데, 환자가 약속을 안 지키면 몹시 당황스럽잖아요? 미국 치과대학생들도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더라구요. Case를 채워야 성적을 받으니까 환자 manage 하는데 많은 공을 들일 수 밖에 없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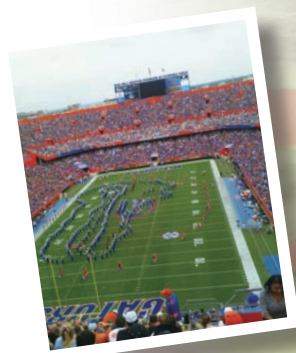
미국 생활은 어떠셨나요?

몇 년간 경주마처럼 주위를 둘러볼 시간 없이 달리기만 했

었는데요. 그런 인생의 심포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가족들과도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어서 좋았구요. 평생 서울이라는 큰 도시에서만 살다가 한적한 시골생활을 하니 여유롭기도 했구요. 플로리다라는 주 전체가 거대한 자연공원이나 다른 없기 때문에 주변에 둘러보고 놀 데도 많았습니다. 걸을 때마다 밭에 채이는 도마뱀과 뱀들도 익숙해 졌구요. 학교에서 주차장 가는 길에 낮잠 자고 있는 악어들 보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Gainesville이라는 도시는 정말 작은 시골인데, 모든 것이 UF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합니다. 사람들 말로는 of UF, by UF, for UF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애들 학교에 가 봐도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UF에서 일을 하더라구요. UF ID card만 있으면 버스도 공짜고 여러 가지 할인 혜택도 많이 받습니다. UF에서 visiting scholar로 있다고 하면 주위 사람들 대우가 달라지기도 하구요, 간만에 시골에서 지역유지 행사도 해보고... 이제 귀국한지 두 달도 되지 않아서 아직도 그 삶이 많이 그립습니다.

1년이라는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다른 사람들도 만나고 그들의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다양한 연구분야와 임상연구에 관한 행정 등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구요. 또 가족과 뜻 깊은 시간이었던 것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또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글 · 사진 치주과학교실 신승일
편집 치과교정학교실 안효원



이금호 교수님 인터뷰



지금 하고 계시는 스마일 재단과의 장애인 구강 사업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젊은 시절부터 장애인 치과 진료에 관심이 많았어요. 소아치과인데 전공이 장애인 치과진료에 필요한 행동조절이나 전신마취에 깊이 관계되고 있던 것도 한 몫 했죠. 그러다 미국과 일본에서 장애인 치과 진료에 관한 것들을 보고 배웠습니다. 특히 일본이 장애인 치과 진료가 아주 잘 되어있는 나라였죠.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치과 진료에 관한 구체적인 시스템이나 기관이 없었습니다. 그 때 생각이 들었죠. 내가 한번 우리나라에 장애인 치과 진료를 위한 재단을 만들어 보자 고요. 장애인들의 치과 진료를 후원해 주고 그

교수님의 근황이 궁금합니다. 교수로서의 삶, 그리고 현재 정년퇴임 후의 삶이 많이 다르신지요?

정년퇴임 이후 현재 저는 스마일 재단의 더 스마일 치과 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과진료를 하고 있고요. 물론 전신마취 치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센터의 설립 취지에 맞게 장애인들의 치과 진료비는 대부분 재단에서 지원해주거나 큰 할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아예 진료비를 안 받고 치료를 하고 싶지만은 현실적으로 센터가 계속 돌아가게 하려면 어쩔 수가 없네요. 좀 더 이상적인, 설립취지에 맞는 더 스마일 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교수로서의 삶과 정년퇴임 후의 삶이라. 글썄요 저는 교수 재직 시절부터 장애인 구강 사업에 대한 꿈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교수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한 걸같이 달려왔습니다.

교수 시절 스마일 재단을 설립하고 지금은 그 스마일 재단 설립 취지의 연장선인 더 스마일 치과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교수로 재직 중이냐 아니냐는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위치에서든 단지 저는 장애인 구강 사업이라는 제 목표를 향해 노력할 뿐이었습니다.

것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 재단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2003년 2월 2일에 스마일 재단 법인을 설립했지요. 이제 거의 14살정도 됐네요. 당시 재단 설립에 일본 장애인 치과 학회가 많은 도움을 주었었죠. 현재까지도 한국과 일본 장애인 치과 학회는 많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은 크게 보철 지원사업 전신마취지원사업 등을 진행했습니다.

재단을 만들고 든 생각이 우리 재단이 장애인들의 치과 진료를 후원만 해줄게 아니라 직접 장애인 치과 진료도 하는 병원을 운영하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정말 감사하게도 경희대 소아치과의 제자가 큰 도움을 주어 지금의 더 스마일 치과 센터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외계층을 돌보시는 교수님이 존경스럽습니다. 다들 힘들어 하는 장애인 치과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기 저기서 많이 들어본 질문이네요.(웃음) 제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웃음) 장애인들은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고 또 본인의 치과적 문제에 대한 인지조차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때문에 장애인들은 대부분 진료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런 장애인들을 후원해주고 특별한 진료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

다. 또 저는 아까도 말씀 드렸드시피 소아치과 전문가로서 그런 장애인들을 진료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고요. 이걸 내가 할 일이다 싶었죠. 모두가 장애인 진료를 기피하면 그들은 누가 봐주나 생각이 들었고요. 장애인 단체들과 이런 얘기도 했었죠. 장애인들에게도 먹을 권리를 주자고 말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것만큼 당연히 생각하는 ‘먹는 것’,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먹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장애인들이 많은데 이런 장애인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게 해 주자고요.

교수님은 늘 건강하고 기운 넘쳐 보이십니다. 건강관리는 따로 하시는지요?

저는 41년생이에요. 치과대학이 6년제가 된 후 첫 기수였죠. 예과 1회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나이까지 계속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꾸준한 운동 덕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먹는 것을 아주 즐기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살기 위해 먹는다고 하지만 저는 먹기 위해 산다고도 할 수 있죠 (웃음) 그런데 맛있게 잘 먹으려면 많이 움직여야 하더라고요. 운동하는 것 말입니다. 젊어서부터 헬스도 하고 달리기를 좋아해서 마라톤도 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골프가 제일 재미 있습니다. 요새는 주로 골프로 운동을 하네요. 그 외에도 운동을 좋아해서 야구, 자전거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겼습니다. 술과 담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여가시간이나 휴일은 어떻게 보내시나요? 여행은 자주 다녀오시나요?

소아치과 학회장, 아시아 소아치과 학회장 등을 하면서 외국은 많이 다녔었죠. 사실 제 목표가 100개국을 가보는 것입니다. 아마 다 못 채울 것 같지만 그만큼 여행 가는 것을 즐기는 편이지요. 최근에는 주로 아시아 학회를 통해 최소 1년에 한번은 해외를 나갔다 옵니다. 가끔 세계학회도 가고요.

여가시간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서울에서 개원을 하고 있는 소아치과 제자들과 매주 목요일마다 정립회관 등에서 무료 봉사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참고 받고 뿌듯한 일이지요.

30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재직하셨는데 가장 기억나는 일이 있으신가요? 가장 기쁘거나 슬펐던 일?

거의 모든 일들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고 생생합니다. 제자들, 후배들과 함께했던 즐거웠던 일들이 많았지요. 한가지 아쉬웠던 점은 ‘선배교수’ 라는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본교에 경희대 출신 교수들이 많았지만 당시에는 서울대 출신 교수들도 많았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 경희대 출신 교수들을 ‘선

배교수’ 라고 지칭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출신 대학을 가지고 구분을 두는 것이 좀 아쉬웠죠. 이제는 시야를 크게 하여 모든 대학이 서로 화합하고 함께 뭉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가르기를 해 봤자 우물 안 개구리만 될 뿐이지요. 생각을 크게 해야 합니다. 가장 기뻐던 일을 굳이 얘기해 보자면 이 센터를 만들었을 때였습니다. 2007년에 제가 스마일 재단 이사장을 하면서 장애인 진료를 위한 센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었고 결국 7년만인 2014년에 이 센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제 약속을 지켜낸 것이지요. 참 기쁘고 감개무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후배 치과의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항상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꿈과 목표가 무엇인지, 그것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표어 하나를 만들자면 ‘U Thinking’ 입니다. U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며 사세요. 뚜렷한 목표를 가지세요. 제가 한번 미국 하버드 대학의 도서관을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인생을 위한 격언들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많은 격언들 중 기억에 남는 게 두 개 있더군요. 첫 번째가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였고, 두 번째가 ‘No pain, no gain’ 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거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대가와 비용이 따르지요.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열심히 노력하고 매진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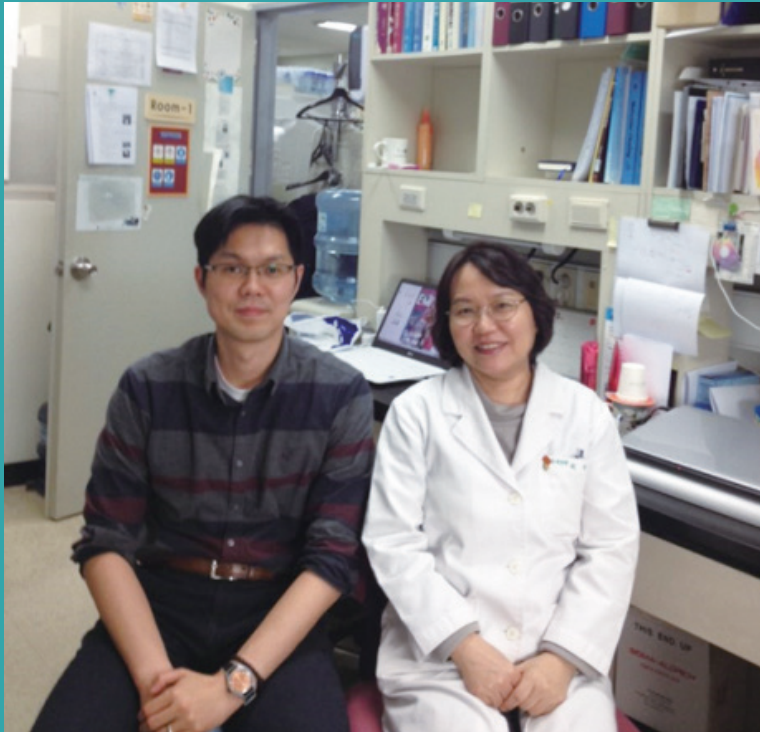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봉사에 대해 얘기하고 싶습니다. 소위 ‘give & take’ 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의사들은 ‘give & give & forgive’ 로 마음가짐을 바꿔야 합니다. 항상 봉사하는 마음으로 환자들을 대하고 또 봉사할 기회를 찾아 진료봉사를 하세요. 꼭 장애인에게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길은 아직 많아요. 여러분이 찾기만 하면 됩니다. 요즘 시대는 너도나도 다들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지요.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봉사야말로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요.

글·사진·편집 치과보철학교실 백장현



구강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

Department of Oral Biochemistry and Molecular Biology



왼쪽부터 김정목, 김정희 교수

실험실 치의학관 606호
전공주임교수 김정희 교수

전체 구성

교수 2명 (김정희 교수, 김정목 교수)
조교 1명, 연구원 1명, 대학원생 5명 (석사과정 3명,
석박사 통합과정 2명)

1. 교실 소개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구강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은 1996년 3월, 현재 주임교수인 김정희 교수가 부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김정희 교수는 치과대학의 생화학, 분자생물학, 구강생화학 교육에 힘쓰며 구강암 세포 성장·사멸에 관한 연구 및 유전자 진단기술 개발에 매진하였습니다. 그 후 2012년 3월 김정목 교수가 구강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의 조교수로 부임하면서 현재의 교실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며, 2016년 현재 1명의 조교, 1명의 연구원, 5명의 대학원생 (석사 3명 및 석박사 통합과정 2명)이 교육 및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희 교수는 현재 일반대학원 나노의학생명과학과 및 KHU-KIST 융합과학기술학과의 겸임교수로서 폭넓은 교육 및 연구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교실은 생화학, 분자생물학, 구강생화학 강의를 통해,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인체를 구성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의 물리·화학적 성질, 세포의

신진대사 과정 및 조절 기전, 유전자 발현의 생명현상의 기능을 분자 레벨에서 학습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전신 및 구강 영역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생체분자의 구조, 기능, 대사 및 조절 기전을 이해하고 나아가 치의학 연구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연구 분야

저희 실험실은 생화학·분자생물학적 실험 기법을 바탕으로 핵산 기반의 차세대 진단 시스템 개발, 세포 에너지 대사 과정의 신호전달 조절 메커니즘 및 관련 조절 약물 개발을 위한 아래와 같은 생화학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원하는 개인연구자 기본연구사업, MRC 선도연구센터 사업, BK21 플러스 사업, 바이오·의료기술 개발사업 및 산업자원부가 지원하는 연구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 구강암 성장 및 사멸 (apoptosis) 메카니즘 연구를 통한 질병 target 발굴과 modulator 개발
- 구강 스트레스 제어의 생화학·분자생물학적 메카니즘 연구를 통한 후보 물질의 탐색 및 작용 메카니즘의 규명
- Live cell imaging 및 protein translocalization 기법을 통한 high throughput in-cell assay 개발
- 차세대 진단 시스템 개발: Nucleic acid 기반의 분자진단·치료(theragnosis) probe의 발굴 및 개발
- 세포에너지 인지 AMPK/mTORC1 신호전달계 및 autophagy 조절계의 상호작용 및 세포 항상성 조절 메카니즘 연구
 - : AMPK/mTORC1/autophagy 구성 네트워크 분석 및 조절 인자의 발굴
 - : 세포 에너지 레벨에 따른 세포자가포식(autophagy) 과정의 상호작용 연구
 - : 세포 에너지 레벨 조절에 의한 다양한 세포의 성장·분화 조절과정 규명
- 타겟 유전자 신약개발 시스템 개발
 - : 질병에 관련된 AMPK/mTORC1/autophagy 네트워크 구성 타겟 단백질 활성을 high-throughput format으로 분석하는 assay법 개발
 - : Chemical/natural product/peptide library 스크리닝 및 lead compound 도출

3. 실험 장비 및 기술

- PCR/Real time PCR machine을 이용한 병원균 진단 kit
- Retrovirus/Lentiviral vector를 이용한 타겟 유전자 과발현(overexpression)·억제 (knockdown) system construct 제작 및 이를 이용한 유전자 조작 세포주 제작
- 타겟 단백질을 대장균, 동물세포에서 발현하여 분리·정제한 뒤 단백질의 특성 및 활성 in vitro 생화학·분자생물학적 분석
- 타겟 단백질의 세포내 활성·조절 기전 연구를 위한 western blots, immunoprecipitation, immunostaining 분석 및 세포성장·사멸 ass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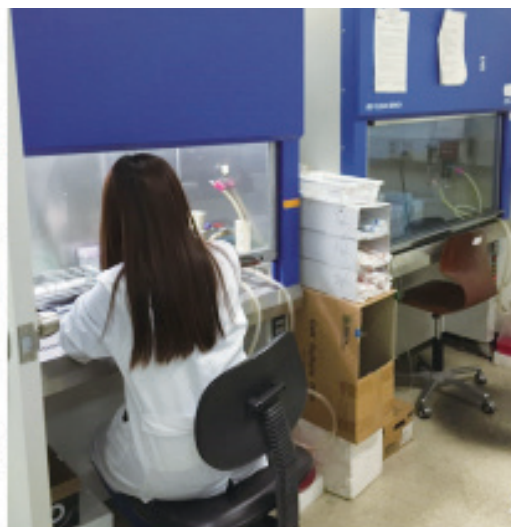
4. 사회 활동

- 김정희 교수 : 대한구강생물학회 이사
 대한생화학분자생물학회 대의원
 한국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이사

글·사진 구강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 김정목
 편집 구강악안면병리학교실 조영아



1. 실험실 전경



2. 세포배양실

학교(병원)에서 운동하여 몸짱되자(상)



바야흐로 운동의 시대이다. TV를 틀면 수많은 트레이너나 머슬퀀들이 TV를 장악 하고 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건강하고 강한 육체에 관심이 많아진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하지만 바쁜 현대인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 마음 편히 헬스장을 찾기로 쉽지 않다. 그래서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몇 가지 기구만 있으면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운동법들만 모아 보았다. 문틀 턱걸이, 푸쉬업바, 덤벨 2개 정도는 준비하자.(푸쉬업 바가 없다면 덤벨을 바닥에 두고 푸쉬업을 해도 된다.) 초급자들 대상으로 쉬운 용어로 풀어 나갈 것이며, 나 역시 전문 운동가는 아니기 때문에 고급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책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를 얻으시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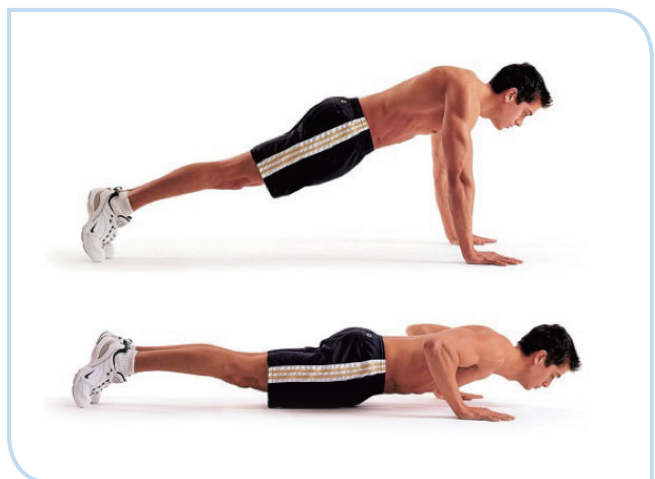
운동법을 소개하기에 앞서 과연 운동을 분할해서 할 것인가 무분할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분이라면 무분할로 시작해야 한다. 이유는 분할해서 운동을 하는 원리를 생각하면 간단하다. 분할은 각 근육들의 휴식을 위한 것이다. 특정 근육군에만 강한 자극을 주고 그 근육이 회복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근육은 회복하면서 커진다. 하지만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특정 근육군에만 큰 자극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일단 모든 근육군을 골고루 운동하면서 기본적인 체력, 근력, 근지구력을 키워야 한다. 그렇게 때문에 무분할로 모든 부위를 조금씩 운동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어느 정도의 근력, 근지구력이 형성되면 분할 운동으로 들어간다. 운동하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분할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할 것이고 무엇이 정답이라고 하기는 힘들다. 나는 가슴과 삼두, 등과 이두, 어깨와 하체를 묶는 3분할을 추천한다. 어떤 이들은 가슴운동을 하는데 삼두가 개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삼두에 이미 피로도가 많이 쌓여 무게를 칠 수 없다고 가슴운동과 이두운동을 묶는 식의 방식을 따른다. 하지만 운동하는 목적 자체가 특정 근육에 피로도를 쌓고 더 큰 자극을 주기 위함인데 굳이 피로도가 쌓이지 않은 근육에 다시 자극을 줄 필요가 있을까? 이미 피로도가 쌓일 만큼 쌓인 삼두근에 더 많은 피로도와 자극을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가슴

과 삼두를 묶어서 운동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는 회복적인 면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가슴운동을 통해 삼두근에 피로도가 이미 쌓였는데 그날은 이두근을 운동하고 다음날 다시 삼두근을 운동한다면 삼두근은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등 운동에는 개입이 가장 많은 이두근을 묶어 주었고, 등과 하체는 서로 관계가 없지만 둘 다 굉장히 체력 소모가 크고 여러 근육의 개입이 많은 운동이기에 가장 서로 개입이 없는 부위끼리 묶어 주었다. 물론 어깨와 하체를 하루씩 나누어 4분할로 나누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우리는 바쁜 현대인이기에 매일 운동이 가능하지 않는 이상 4분할은 추천하지 않는다. 3분할로 운동을 하며 매일 강한 코어를 위한 플랭크 운동을 추가해주면 금상첨화겠다. 플랭크 운동법은 인터넷에서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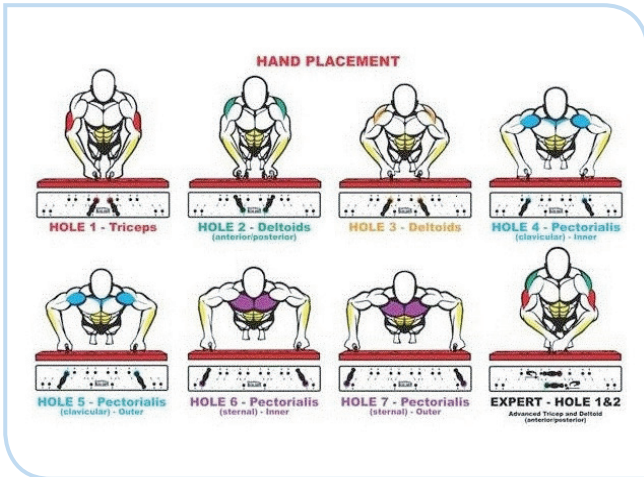
가슴 + 삼두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가슴 운동은 팔굽혀 펴기가 최고다. 팔굽혀 펴기만으로 가슴근육을 키울 수 있을까 의심스럽겠지만 일단 시작해 보아라. 팔굽혀 펴기는 단순하지만 최고의 가슴 운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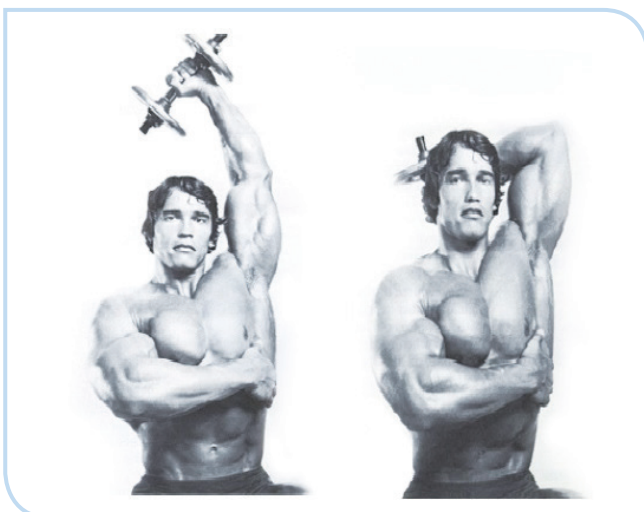


팔굽혀 펴기는 가슴뿐만 아니라 어깨 삼두 등근육 등이 개입하게 된다. 특히 손의 위치에 따라 자극 받는 근육이 달라

진다. 여기서 우리가 팔굽혀 펴기를 하는 목적은 가슴 운동을 위한 것이다. 좁은 자세로 팔굽혀 펴기를 하면 어깨와 삼두근에 자극이 많이 가고 넓은 자세로 팔굽혀 펴기를 하면 가슴에 자극이 많이 오게 된다. 그러므로 팔을 넓게 벌리고 실시한다.



팔을 일자로 뻗은 상태에서 한 뼘 정도씩 옆으로 더 벌려 주면 되겠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내려가고 올라가면서 어깨 끝에서 발뒤꿈치 끝이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해 주는 것이다. 내려갈 때는 가능한 가슴근육에 자극을 느끼면서 천천히 올라올 때는 빠르게 올라오도록 한다(호흡법은 운동별로 다르다 설명하지 않겠다. 호흡은 기본적으로 힘을 쓸 때 뱉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힘을 쓰는 최대 정점에 도달하면 뱉으면 된다.) 더 운동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파나 의자에 다리를 올려준다. 반대로 힘이 부족하다면 무릎을 땅에 대고 하는 방법이 있다. 푸쉬업바가 있거나, 없으면 덤벨을 바닥에 놓고 그 위에 손을 올리고 실시하면 가동범위를 넓혀 주기 때문에 더욱 강한 자극을 줄 수 있다.



가슴운동이 끝났으면 이미 삼두에 꽤 많은 자극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삼두 운동은 원암 덤벨 익스텐션과 의자를 이용한 운동법을 추천한다.

헬스장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는 킥백(엎드려서 팔을 뒤로 들어 올리는 자세)은 초보자들이 하는 운동으로는 추천하지 않는다. 삼두의 크기를 키우기 위한 운동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원암 덤벨 익스텐션은 이름 그대로 한쪽팔로 덤벨을 잡고 삼두근을 쭉 늘려 이완 수축을 시켜주는 운동이다. 의자에 앉거나 선 자세에서 한쪽 팔에 덤벨을 잡고 귀 옆으로 쭉 뻗어서 들어 올린다. 그 후 덤벨이 내려올 때 덤벨의 위치가 뒤통수 중앙에 오게 내려준다. 이때 팔꿈치가 귀 옆에 붙을 필요는 없으나 팔꿈치가 고정되어야 한다. 반대편 손으로 팔꿈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면 도움이 된다. 들어 올릴 때에는 팔을 끝까지 피지 않고 항상 근육의 긴장 상태를 유지한다.



두 번째 삼두 운동법은 의자를 이용한 삼두 운동법이다. 의자를 2개 마주보게 놓고 한쪽엔 다리를 올리고 한쪽엔 팔을 뒤로해서 의자의 모서리를 잡는다. 시선은 정면을 유지하며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도록 신경 쓴다. 다리나 복부에 힘이 안 들어가도록 최대한 삼두에만 집중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내려갈 때에는 등이 의자의 끝을 스치듯이 내려간다고 생각해주면 된다.

다음호에 (하)가 연재될 예정입니다.

글 · 사진 양재민(치전원 4학년) 편집 구강악안면외과학 이정우



발전기금 입금 (2016. 02. 29 기준)

- 1억원 이상** 안영자 이창진 (주)덴티움 (주)신홍
- 7천만원 이상** 객약훈 (주)비스코덴탈아시아
- 5천만원 이상** 김은철 이재광 센트럴청원치과의원 치과대학동문회(지순준 외)
- 3천만원 이상** 전요한 굿월치과병원덕천 굿월치과병원하단 김성기치과 압구정 사랑의치과의원
(주)모르페우스 오스템임플란트(주) (주)자-씨 코리아 2006년도 매칭펀드
- 2천만원 이상** 고광수 고철수 김용래 문정기 박준봉 이명옥
- 1천만원 이상** 공희정 권영혁 김규남 김성욱 김승윤 김영훈 나성식 류동목 박양제 박영국 박주연 박창건 박태용 백두흠 변 옥 서광원
송요선 신용범 신한식 오구환 오우식 유성희 이광섭 이규원 이근혁 이기수 이두희 이상혁 이상복 이 윤 이한우 장상건
장지현 정극모 정성민 조영욱 최대균 최효영 한만형 경희치과병원 굿월치과병원서면 경희치과병원 굿월치과병원서면 미주치과의원
시카고치과병원 참조은치과병원 쿠파란트치과 화인치과병원 오우대학 치과대학2기동문회 치과대학3기동문회 치과대학6기동문회 치과대학9기동문회
치과대학12기동문회 치과대학13기동문회 치과대학9기동문회 치과대학22기동문회 치과대학1회졸업생일동 치과대학수원지역동문회 2004학년도매칭펀드
- 8백만원 이상** 김광철 김세영 김여갑 김인화 양승춘 이진용 (주)악어미디어
- 5백만원 이상** 고광준 권공록 권일근 김기태 김려수 김상일 김수철 김영진 김용준 김판식 김필수 김항경 김형찬 류동목 박기범 박성석
박도양 박상혁 박승훈 박용덕 박재홍 박태용 박호정 박희경 백종준 신 명 신제원 우이형 윤옥병 이관주 이명성 이상호
이상복 이원화 이현우 임호남 강건택 전진학 정규림 정용식 조재오 조준영 조해성 지유진 지찬동 최경규 최근락 최기운
최성백 최용석 최호근 허성윤 허 익 홍정표 황의환 황재상 최신치과 치과대학16기동문일동 치과대학치주과학교실동문회
- 3백만원 이상** 강기현 강승훈 고봉진 구한미 권균원 권순용 권용대 권태훈 권호진 김 덕 김동호 김명환 김보혜 김석훈 김선규 김성용
김성환 김소현 김옥진 김우찬 김윤홍 김정희 김종환 김진철 김형남 김형섭 김형진 김효종 김훈회 마경화 박동진 박미애
박상규 박상규 박상규 박상기 박성동 박수배 박희찬 백영완 백종은 부용철 성낙도 손세일 손원영 송창준 신민철 신민홍
신완용 신의종 안민호 안희진 어규식 염상국 오범수 오병섭 오성산 오창근 오화탁 우정석 우택호 우형식 유석규 유신중
유재천 유용태 이진표 이형재 임성빈 임성수 임순빈 임인화 장봉렬 장성진 장우익 장희용 전양현 정병선 정병선 정순준
정연식 정운봉 정재규 정종혁 정창권 정 철 정철민 정형주 제한봉 조남성 조민구 조세종 조인교 조정근 조태희 조호구
주성수 자유진 천강정 최병환 최유진 최재영 최정규 최현수 한승완 한용환 한 훈 홍성태 홍영안 홍정표 권호진치과의원
김정수치과의원 동산치과의원 미담치과의원 오승훈치과의원 우암치과의원 이치과의원 조재민치과의원 중앙치과의원 파나소닉코리아주식회사
- 2백만원 이상** 권기열 김광철 김기문 김도완 김동기 김명진 김방수 김성진 김옥현 김 은 김인수 김재승 김정목 김정우 김종규 김지태
김종진 김흥모 나금균 노대현 류종균 모규엽 문재룡 문항진 박노희 박선영 박성근 박성원 박수진 박순정 박재현 손일수
송윤현 신동진 신영림 신현택 엄영호 오인종 유경민 윤경도 윤석우 이규찬 이미경 이상복 이상철 이상훈 이은준 이정민
이준철 이준열 이창진 이필제 이해승 임태수 장수일 정주우 조승제 조민우 조승태 최상호 하정상 한기철 허정선 홍선희
황정환 남포치과의원 부평정원치과 주안정원치과 평화치과 스트라우먼덴탈코리아 치과대학1기동문회 치의학전문대학교정학교실 전공의일동
- 1백만원 이상** 강기현 강백면 강정백 강한중 고진환 고천석 곽춘길 구분룡 구자룡 구재우 권수갑 기태석 길경미 김종선 김경아 김경용
김광희 김귀원 김동규 김동환 김문기 김미경 김봉현 김상석 김선욱 김선호 김선희 김성길 김성민 김철철 김세일 김수강
김수진 김영일 김옥련 김웅구 김원겸 김원겸 김인근 김재구 김재오 김재일 김재철 김중호 김중중 김진호 김철중 김충길
김태형 김택청 김해근 김현호 김형석 김혜경 김홍기 나성식 나종일 나태돈 남병우 남재형 노영익 류경희 류호철 류 훈
문민연 문수인 문용환 민선희 민호기 박동원 박두중 박병길 박병욱 박봉규 박상규 박상기 박상훈 박석범 박순건 박영수
박영주 박은기 박일해 박재석 박정선 박정용 박창진 박철재 박칠성 박 현 박현석 배영수 백상규 백영걸 변태진 사영철
서정수 서남영 서영문 서윤원 성각진 송국현 송민재 송은면 송재만 신동근 신동근 신혜련 안광식 안근구 안정원 안장원
어수철 엄인석 오세용 오정진 오정환 오중영 오현미 원미영 유선렬 유용조 유인영 유주현 유희승 윤경도 윤동호
윤두근 윤민의 윤완자 윤창구 이건중 이공훈 이광재 이교용 이공호 이동규 이만섭 이병국 이병도 이병태 이상은 이상호
이성철 이세종 이세준 이승춘 이승택 이영규 이영근 이영석 이영식 이완규 이용호 이원섭 이원화 이인석 이재학 이재홍
이정열 이정현 이종민 이창규 이천복 이충복 이태수 이태호 이화연 이흥기 이희정 임기호 임상욱 임종성 임천택 임호섭
장미정 장상수 장영빈 장원중 장정태 장철민 장병주 장 훈 전석연 전장환 전중혁 조관희 정대현 정도용 정미현 정순모
정민정 정용복 정인교 정현근 정희일 조동서 조병도 조성영 조성열 조영진 조의현 조의현 조진호 지정호 지준수
진택현 차덕선 채영원 천무철 최명애 최상돈 최수형 최승규 최승현 최연석 최영범 최영철 최원재 최인식 최중우 최중실
최천영 최호영 최홍식 하대주 한기림 한문식 한봉식 한정희 한창규 한휘철 현원섭 홍성준 홍진표 홍해룡 홍호철 황용구
경희치과의원 광산치과의원 구미공단예치과병원 구치과의원 뉴욕BNS치과의원 모아치과병원 박상현치과의원 발안치과 사람인치과의원
서산예치과 세영치과의원 송도드림치과의원 연산치과의원 용치과의원 웰나치과의원 유티치과의원 유인탁치과의원 이원준치과의원 이트치과
임길웅치과의원 종로치과의원 청구치과 청담부치과의원 청원치과의원 최완침치과의원 한마음치과의원 한수치과의원 함께하는치과 허치과의원
드림빌딩(서남영) 2005학년도매칭펀드
- 1백만원 미만** 강남현 강대인 강승규 강주성 강철규 강혜성 고건호 고영훈 고일철 고창배 고 현 공선식 공순현 곽용훈 곽호정 권구현
권정은 금구석 금미연 김경선 김경준 김광식 김교철 김남중 김동규 김명섭 김미경 김민성 김보균 김보라 김보선 김복래
김봉준 김상균 김상우 김석용 김성일 김승일 김시석 김시원 김영기 김영득 김영택 김윤희 김이철 김일환 김장욱
김재수 김종현 김철순 김태연 김현경 김혜정 김호진 김홍광 노은희 류창수 류호경 모덕진 문영훈 문희현 민관순 박건호
박경아 박경일 박근출 박기현 박성규 박성규 박성준 박용호 박원규 박재준 박준수 박지혜 박창훈 박준배 반대환 배기창
배일환 배한익 백기현 백종욱 백 진 백효찬 변현홍 서경성 서재승 서찬호 송용섭 송성규 신강섭 신동렬 신용문 신재창
안휘용 양희운 양광도 오나희 오승교 오승환 오유리 오승관 오현우 우승철 원현두 유지훈 유하균 윤여진 윤용섭 윤원용
이대승 이동현 이상만 이수미 이수영 이수옥 이시원 이연수 이영희 이영재 이정행 이정호 이지민 이지혜
이채숙 이한주 이현우 이현경 이현식 이해영 이호현 임경석 임병진 장영명 장영배 전성근 전영신 전찬덕 정남희 정민수
정성진 정의산 정지향 조규석 조성국 조영주 조윤숙 주상환 지상진 최대영 최동훈 최문철 최성연 최승모 최창규 최현용
최효영 최희철 하지웅 하지양 한동민 한무현 한수희 한혜숙 홍동희 황선달 황윤태
노치과의원 뉴욕치과 뉴욕치과의원 덕수치과 르네상스치과 모마치과 미소시티치과의원 서인천뉴욕치과 석치과의원 성모치과 연수준치과의원
윤석우치과의원 이경훈치과 이채동치과의원 제일부부치과 청담부부치과의원 최창규치과의원 프랜치치과의원 현대치과의원

동문회 소식 및 경조사

동문회소식

- 2015.09.06 경희치대 치주 보철과 OB회 학술대회(경희대 청운관) 안민호 회장
- 2015.09.09 동창회장, 학장님 간담회
- 2015.09.11 고향치전 박능석 부회장님 참석
- 2015.10.07 (사)경희치대동문장학회 이사회
- 2015.12.05 연세치대동문회 총회
-참석 : 안민호 회장
- 2015.12.07 동창회 임원인선을 위한 모임
-참석 : 안민호 회장, 박관수, 손세일, 김방수, 김일중
- 2016.01.07 경희대학교총동문회 신년교례회(최영립 동문 공로상 수상)
-장소 : 롯데호텔
-참석 : 안민호 회장, 조선경 재무, 정재규 고문, 김춘진의원, 최영립
- 2016.01.11 서울 강동구동문회 신년회
-장소 : 킨쇼
-참석 : 안민호 회장, 박관수 총무
- 2016.01.15 치과의사국가고시장 격려방문
-장소 : 용산공고
-참석 : 안민호 회장, 박관수 총무, 조선경 재무, 최재용 총무간사
- 2016.01.20 동창회 고문단 회의
-장소 : 설국
-참석 : 이수인, 장지우, 정재규, 김성욱, 정철민, 김세영 고문, 안민호 회장
- 2016.01.27 운영위원회
-장소 : 아루일식
-참석 : 안민호 회장, 박능석 부회장, 김봉현, 박관수, 조선경, 최재용, 윤종상, 김소현, 권태훈, 박기호, 태경석
- 2016.01.29 서울 은평구동문회 신년회
-참석 : 안민호 회장
- 2016.02.15 학생회 간담회
-장소 : 명성관
-참석 : 안민호 회장, 박관수, 조선경, 윤종상

- 2016.02.17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식
참석 : 안민호 회장
- 2016.02.19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 치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오리엔테이션
-장소 : 용평 알펜시아리조트
-참석 : 안민호 회장, 박관수 총무
- 2016.02.20 재부 경희치대동문회 38차 정기총회
-장소 : 부산국제호텔
-참석 : 안민호 회장, 김세영 고문, 박영국 학장, 박관수 총무

경조사 및 동창회원 근황 (2015.09.01 ~ 2016.02.29)

경사

- 2015.09.12 이영식(8)딸결혼
- 2015.10.03 김훈회(12)딸결혼
- 2015.10.17 박재봉(12)딸결혼
- 2015.11.01 오병원(9)딸결혼

조사

- 2015.09.21 상주 최영립(13)
- 2015.09.25 상주 나성식(3)

HUMANISM

ESTHETIC

LEADERSHIP

PROGRESSIVE SPIRIT

EXCELLENCE

RESPONSIBILITY

STEWARDSHIP



치과대학 · 치의학전문대학원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T. 02-961-0341~2 E. khsc0800@khu.ac.kr